가마 타고 결혼식 한 애견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류현진 완봉승 '최고 순간'

● 먹고싶은 고기 반반 골라 한팩 ● 기호 맞는 차만 골라 세트로 ●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도 제품선택

취향대로 '알뜰' 골라담아 '살뜰'

이웃 돕는 그녀 '박만불짜리 미소'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 준비를 지원하는 손길도 예년보다 일찍 분주해졌다. 22일 대전 서구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한 갈리리아백화점 봉사단원 60여 명이 연탄 4000장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원하는 품목 원하는만큼 쉬어 구매하는 '픽&팩' 인기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유통업계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고 원하는 만큼 담아 구매할 수 있는 픽&팩(Pick&Pack)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차 전문 브랜드는 취향대로 골라 마실 수 있는 티 세트를 내놓는가 하면 구성품을 공개하지 않았던 서브스크립션 업체들은 고객이 손수 고른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차 브랜드 오설록의 티하우스 후 대점은 '나만의 DIY 티 세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30여 종의 블렌딩 티를 낱개로 포장, 소비자가 직접 시향한 후 원하는 티를 골라 나만의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게 했다. 차 마니아 신수연(31·직장인)씨는 "그동안 10개들이 세트 상품을 샀다가 입맛에 안 맞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기호에 맞춰 제품을 구입하니 끝까지 먹게 되더라"고 말했다.

정기 구독형 쇼핑인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제품을 임의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취향이 뚜렷한 고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셔츠 브랜드 STCO가 론칭한 셔츠 매거진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 소비자들에게 제품 선택권을 부여했다. 직장인 최형승(29·남)씨는 셔츠 매거진은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서비스라고 칭찬했다. 최씨는 "1년에 회비 10만원을 내고 매월 셔츠 한 장을 받고 있다"며 "특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직접 고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개성 있는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육 브랜드 선진은 한 팩에 두 가지 돼지고기 부위를 담은 '반반팩'을 완씨감자 선보어왔다. 삼겹살·목살·항정살 등 원하는 부위를 200g씩 골라 담을 수 있다.

냉장육을 한 번에 먹지 못해 냉동시켜야 했거나 선호 부위가 달라 고민되던 가족 등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와 핵가족 시대의 니즈를 반영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회사 측은 소량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매출이 매년 전년 대비 78%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P&P 마케팅 상품은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유통업계의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떠올랐다"며 "음료, 차 같은 기호 식품부터 뷰티, 패션 아이템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신혼집 빼고도 결혼하려면 5198만원

남성이 700만원 더 지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결혼 비용이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혼집 마련 자금을 뺀 액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식을 치른 결혼 당사자 및 혼주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신혼집을 제외하고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에 소요된 1인당 비용은 평균 5198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414만원, 여성 4784만원으로 남성이 700만원가량 더 지출했다.

응답자별 부담 액수 격차도 컸다. 응답자 기준해 1인당 결혼 최소 비용은 334만원이었고 최고 비용은 3억3650만원에 달해 약 100배 차이가 났다. 예식 비용은 1인당 최소 120만원부터 최고 1억1900만원으로 이 역시 100배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 주택 마련 평균 비용은 주택 구입 시 2억7200만원, 전세 마련 시 1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러한 결혼 실태에 대해 응답자의 85%는 '결혼의 호화 사치 풍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 이기현 팀장은 "결혼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생에 한 번 하는 행사'라며 고가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면서 "결혼 성수기를 맞아 관련 대책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하기자

휴보와 가위바위보 새누리당 김을동(왼쪽) 의원이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점심 휴식 시간에 카이스트가 개발한 휴보 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심 집중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만(오른쪽)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군심리전단장이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거수경례로 인사하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이즈 마케팅에 낚여주는 언론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요 며칠 포털사이트를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유린이라는 한 무명 여배우의 이름이 연일 도배되고 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두신자살, 실제 정사, 원나잇, 남성 1000명과의 성관계, 아이돌 성희롱 등의 선정적인 단어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출 사진까지 줄줄이 나온다.

왜 포털사이트가 '19금 사이트'가 되나 보니 발단은 이유린이 출연 중인 성인 연극 '비노기와 미쓰리'의 제작사가 다음달 공연 개막을 앞두고 '이유린 두신자살 시도'라는 타이틀로 보낸 홍보 보도자료였다.

요약하면 전작에서 실제 정사 논란을 일으킨 이유린이 실제로 사랑한 남자에게 창녀 취급을 당한 뒤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참은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새 작품으로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사는 "절대 홍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했지만 노이즈 마케팅 의도를 숨길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료들을 더욱 자극적으로 포장해 내보내는 연예 미디어의 행태다. 연예 매체들은 이유린의 개인 블로그를 찾아 이곳에 올려진 성 관련 발언과 노출 사진 등 보기만 해도 민망한 내용들을 경쟁하듯 기사화했다.

얼마 전 박중훈이 인터뷰 중 "사람들은 자살, 성상납 등의 얘기가 사회면에 나오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연예면에 나오면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그만큼 이 업계에 자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자살이나 성희롱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다루는 제작사와 미디어의 태도를 보며 씁쓸해진다.

꼼꼼한 원순씨 박원순(앞줄 오른쪽)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귀남 진주시의 '유등축제 표절'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축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셀프감찰?

조영곤 '본인 감찰' 요청에 총장 대행 "철저하게 조사"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가정보원 수사 관련 지휘체계와 수사팀 간 발생한 내분에 대해 대검 차원의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 감찰본부는 이를 감찰1과에 맡겨 본격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과의 갈등,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길 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감찰을 요청한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을 포함해 특별수사팀 등이 1차 조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윤 전 팀장의 '거짓 증언'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부하 검사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면서 오죽하면 본인의 감찰을 요청했겠느냐. 조 지검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셀프'라는 단어가 이 정부 최대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끼리 제 식구를 감싸는 감찰이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고 비판하면서 조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제원기자 mikim@metroseoul.co.kr

軍 셀프조사?

사이버사 전격 압수수색 "정치댓글 상부지시 없어"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와 사무실, 개인 서류,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 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하면서 연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명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밝혔다. /정태호기자

미국 비자 안 나와 마주 국감 못간 정청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민주당·사진) 의원이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 의원이 미주 국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 의원은 부랴부랴 미주 국감팀에서 하차, 유럽 국감팀에 합류했다. 나누 국감팀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타로 투입됐다.

이로써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뉴욕 소재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미주 국감은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심윤조·정병국·황진하·김영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이 참여했지만,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만이 참여하는 불균형 속에서 치러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전대협 결사대 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선준기자

경희사이버대 스피치 챌린지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는 '2013 스피치 챌린지 바이 경희사이버대학교' 예심 참가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대한민국 우리 문화 소개나 평화 통일 등 원검보도 중 1개를 선택해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036-8763~4 http://gc_ai blog me

덕성여대-김가네 장학금 약정

덕성여자대학교(총장 홍승용)는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김가네(회장 김용만)와 18일 장학금 2000만원 기탁 약정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장학금은 5년 동안 매 학기 200만원씩 기탁되며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는 시각디자인학과 학생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부부끼리’ 혹은 ‘나홀로’

서울 30년새 부부가구 4배-1인가구 10배 증가··한부모 가구도 10%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서울 시내 가족 구성원도 변화해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 가구 비율이 크게 늘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980년 8만 가구에서 2010년 85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같은 기간 10만 가구에서 42만 가구로 4.2배 증가했다.

전체 350만 가구를 기준으로 3분의 1이 1인 가구이거나 2인으로 구성된 부부 가구인 셈이다.

전체 가구에서 한 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8.1%(24만여 가구)에서 2010년에는 10.0%(35만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통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39.4%였고 여성의 41.8%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는 1991년 978건에서 지난해 662건으로 20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4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4604건에서 4538건으로 소폭 줄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0년 50.2%에서 지난해 52.4%로 높아졌지만 가사와 육아는 남성(하루 29분)보다 여성(3시간13분) 몫이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남편이 71.8%, 아내 59.2%로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배우자 부모 관계에서는 남편의 57.4%가 만족했지만 아내는 4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현려기자 arasa100@metroseoul.co.kr

"후쿠시마 식품 수입 중단하라" 22일 서울 서대문구 7구동 한국네슬레 본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한국네슬레 측에 후쿠시마 지역 식품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뭘 봤길래… 유치원 어린이들이 22일 서울 1호선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2013년도 민·관·군 합동 재난사고 대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강서구 긴급구조 종합훈련 중 하나인 화재 관련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 회원 18만’ 성매매 사이트

전국 620개 업소 홍보 대가 17억여원 번 일당 적발

회원 수가 무려 18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김모(30)씨를 구속하고 일당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부산·경남 지역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 '밤조이스'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을 담당하는 사이트를 잇따라 개설했다.

회원 수가 18만 명을 넘고 이 사이트를 홍보 창구로 활용한 업소만 620곳에 달했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 마련된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이었지만 유살롱 등 고급 술집도 등록돼 있었다.

김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소개해 준 대가로 업소로부터 매달 20만~4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17억50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투자를 유치해 게임사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진기 사이버수사대장은 "이 사이트에 소개된 전국 620곳의 업소는 물론 회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변관기자

서울 교원 징계원인 1위 ‘돈’

금품수수 3년간 84건

지역 교원 10명 중 3명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 현황'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교원 징계 건수 259건 중 84건(32.4%)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35건(13.5%), 업무 부적정 24건(9.3%), 성범죄 12건(4.6%) 순이었다.

경기는 243건 중 음주운전 94건(38.6%), 성범죄 22건(9.1%), 강원은 134건 중 음주운전 51건(38.1%), 성실의무 위반 24건(18.0%) 등이었다. /김유리기자

뉴스 & 뉴스

"서울시 교통카드 입찰제안서 한화에 불법유출"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22일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 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 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화S&C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와 함께 가처분 이의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채 배임’ 수사··KT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22일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KT의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고발했다.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 29→34세로 확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 나이가 2016년까지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청년 기준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든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그림 하상철

축구황제 펠레 태어나다

1940년 10월 23일 브라질의 가난한 시골 마을 트레스 코라코이스에서 펠레가 태어났다. 축구선수였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자란 펠레는 만 16세가 되기도 전에 브라질 최고의 명문팀 산토스의 프로 선수가 됐다. 58년 스웨덴과의 월드컵 결승에서 브라질이 5:2로 이겼고 그 중 2골을 17세 8개월의 사상 최연소 선수인 펠레가 넣어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69년 11월 1000골을 돌파한 그는 '축구황제'라는 별명을 얻었고 펠레가 대표선수로 뛰는 동안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세 차례 우승해 우승컵 줄리메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됐다.

누드해변 이번엔 생길까

강원도 동해안 해변에 2017년 시범운영 목표

강원도가 동해안 해변의 차별화를 위해 누드해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2일 동해안 해변 발전 방안의 하나로 누드해변 조성 추진안을 내놨다. 과거에 강릉 연곡해변 등을 누드해변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시기상조라는 거센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환동해본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내년 누드해변을 희망하는 후보지를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5~2016년 외부의 무단 출입 통제를 위해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2017년부터 시작한다.

강원도는 누드해변이 감소 추세에 있는 여름 해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인 기자

국화로 만든 한반도 강원 춘천시 도립화목원에 22일 한반도 모양의 국화기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中 관광객 300만 '훌쩍'

올해 국내 입국자 1위 일본인은 26%나 줄어

올해 중국인 입국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일본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22일 올해 1~9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이 306만52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인 입국자 수(207만9025명)와 비교해 100만 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중국인 입국자 수(273만1121명)보다도 많은 수치로 중국인 입국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도 804만91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났다.

반면 일본인은 올해 9월까지 203만5508명이 입국,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1만705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어?" 어르신들이 2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중구청장배 어르신 장기대회에 참가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중국인 입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71만28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68만6990명, 40대 63만1447명, 50대 44만1305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의 조치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며 "비자제도와 출입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mkm@metroseoul.co.kr

임신 여군 산부인과 근접지 배치

여군이 임신할 경우 30분 내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 배치되고 산의 취약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설치되는 등 모성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취약 지역 여성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보직을 조정하고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코레일공항철도 이용객 19만2839명 사상 최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공항철도를 이용한 사람이 19만2839명으로 지난 2007년 3월 개통 후 하루 최대 이용객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 기록은 지난 5월 16일 18만9647명이었다.

코레일 측은 서울 상암동 억새축제, 마포 새우젓축제, 인천전국체육대회 등이 동시에 개최되면서 인근 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계양역 등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80% 원비 가이드라인 어겨

전국 사립유치원 80%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유치원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유치원 3875곳 중 3943곳(80.2%)이 원비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했다. 대신 급식비 등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분을 허용했다. /김유리 기자

동네방네

노원구 대입전략 설명회 개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5일 오후 2시 광운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대학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EBS 대표 강사 4인이 참여하며 영역별 학습법 특강과 내년 일정에 따른 시기별 대응 전략 등을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EBSi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문의: 02)2116-4437

사당동 올 침수피해신고 '0'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올해 사당동 일대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신고는 2011년 2062건, 2012년 15건으로 급감했다. 구는 이를 위해 물막이판 설치 및 빗물받이 준설 사업 등을 시행했다.

마라톤 도중 민망한 장면 왜?

metro HongKong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000여 명의 선수들이 벽 앞에 일렬로 서서 소변을 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21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이날 선수들은 화장실이 부족하자 중앙지도자들의 사무청이자 집단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 앞의 붉은 벽을 '야외 화장실'로 사용했다. '노상방뇨 군단'에는 외국 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현지 경찰은 "저지하려고 했지만 소변을 보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베이징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탓에 많은 선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리=조선미기자

예물보따리 16개에 · 사람이 메는 가마 타고 · 명품 예복 입고 행진

中 애견 초호화웨딩 '눈살'

중국 쓰촨성에서 한 애견인이 견공을 위해 초호화 결혼식을 열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랑견 '콰이콰이'는 신부견 '란란'을 맞이하기 위해 예물 보따리 16개를 준비했고 집에서 예식장까지 30Km 거리를 사람 4명이 메는 가마를 타고 왔다. 멋진 예복을 빼입은 콰이콰이가 보드를 단 채 식장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식종이 꽃가루가 휘날리고 들러리 개들이 목청 좋게 '합창'했다.

신랑견 '콰이콰이'가 사람들이 메는 가마를 타고 예식장으로 가고 있다. /인터넷

화려한 애견 결혼식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쓰촨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비난의 강도가 세다. 이 지역은 2008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무너져 중국 전역에서 기부금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에서는 견공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애완동물 전용 공동묘지가 들어서는 등 '개 팔자 상팔자'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07년에는 한 대학교수가 애견의 장례식에 10만 위안(약 1300만원)을 써서 논란을 빚었다. 또 유명 애완동물 공동묘지는 1㎡당 약 3만6800위안(약 660만원)의 높은 가격에도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10년 전 애완동물 전용 화장터가 베이징에 처음으로 문을 연 뒤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애완동물 전용 공동묘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조선미기자

오바마 놀래킨 붉은옷 여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건강보험개혁안 '오바마케어'에 대해 연설하던 도중 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휘청거리자 부축하고 있다. /AP 뉴시스

나이 들기 쉬운 건조한 환절기엔

어린 얼굴로 꽉 잡아주는 모공보습

AQUA FORCE

EXTRA LOTION

ORBIS

market index <22일>

지표	값	변동
코스피	2058.12	(+3.11)
코스닥	531.69	(+2.55)
금리	2.83	(-0.01)
환율	1060.50	(-1.50)

뉴스&뉴스

대한적십자 사랑의 바자회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3 적십자 바자회'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국내주식 외인 보유비중 33% 넘어 6년 만에 최고

●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장인 38일째 순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도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1328조원)에서 외국인 보유액(439조7000억원) 비중은 33.11%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날 33.15%로 2007년 7월 25일(33.16%) 이후 6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강세를 이었다. /김현정기자

SM 中덕분에 주가 '승승'

● 엔터테인먼트주가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에 힘입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 엔터주인 에스엠(SM)은 이날 0.26% 올랐다. 3거래일간 9.83%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SM이 지난 19일 열린 베이징 공연에서 7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김하늘기자

'은행 공동카드' 이용 저조

● 도입 1년을 맞은 '은행 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현금카드 결제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1400건,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전체 카드 승인 건수가 하루 평균 2999만 건, 1조7870억원인 데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송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2-2100
독자센터 (02)721-9785
2005년 1월 24일 창간 서울특별시 아00089

대형마트들 PB우유 최대 14% 인상

대형마트들이 자체브랜드(PB) 우유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우유가 주원료인 커피 빵 등도 덩달아 11월에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PB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마트는 지난 10일부터 9개 우유 제품의 가격을 8.3~10.9% 올렸다. 이마트 1등급 우유 1ℓ 제품은 1700원에서 1870원으로 10.0%, 이마트 1A등급 우유 1ℓ 제품은 1880원에서 2060원으로 9.6% 인상됐다.

홈플러스도 지난 17일자로 11개 우유 제품 가격을 적게는 7.2%에서 많게는 14.9% 올렸다.

롯데마트도 지난 18일부터 흰우유 20개 품목, 가공 우유 2개 품목, 요구르트 9개 품목 등 총 31개 품목을 일제히 올렸다. 인상률은 흰우유가 10% 안팎, 가공유는 6.9%, 요구르트는 7.0~10% 선이다. /박지원기자 pjw@

판교신도시 "내가 제일 잘나가"

올해 931가구 분양에 2만4000여 청약자 몰려 '최다'

올해 분양된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판교신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올해 분양된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일반 분양 물량은 총 26개 지역 67개 단지 4만7444가구다.

이 가운데 1순위 마감된 곳은 17개 단지였다. 서울 내곡지구와 위례신도시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교신도시 2곳, 인천구월지구 2곳, 동탄2신도시 1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경우 나온 물량이 2개 단지 931가구에 불과했지만 2만4453명이나 몰려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했다. 서울 내곡지구도 올해 공급한 물량이 모두 1순위 마감됐다. 공급 물량은 4개 단지 1040가구였으며 1순위 총 청약자는 5123명이었다.

이에 반해 청약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경우도 있다. 올해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중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던 동탄2신도시에서는 모두 9개 단지 8732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그러나 1순위 마감 1곳, 3순위 마감 2곳에 불과해 청약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혔던 마곡지구에서는 9개 단지 2854가구가 공급됐지만 1순위 마감 단지는 없었으며 2순위 마감 1곳, 3순위 마감 4곳에 그쳤다.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조은상 팀장은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는 도로, 학교, 상가 등 도시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지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며 "하지만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입주 후 프리미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단지별 경쟁력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통 큰 보온병'에 온기 착착 채워요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타 상품 대비 80% 가량 저렴한 '통 큰 보온병'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특허받은 3단 분리형 속뚜껑으로 세척이 용이하고 원터치 버튼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뉴시스

"알파벳·숫자 비켜!"

KB '훈민정음'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훈민정음' 카드 시리즈 출시를 확정하며 알파벳·숫자 시리즈 등을 내세운 타사 카드 브랜드에 맞불을 놓는다. KB국민카드는 이번 카드 시리즈를 알리기 위해 최근 음악 채널 엠넷(Mnet)에서 성황리에 방영 중인 '슈퍼스타K5'에서 톱4로 오른 최종 출연자 4명을 광고 모델로 기용할 방침도 세웠다.

22일 KB국민은행과 엠넷 등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2일쯤 한글을 모티브로 한 '훈민정음'을 출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카드는 이번 카드를 4가지 카테고리로 구별해 출시함으로써 그동안 M카드로 대표되는 현대카드의 알파벳 카드와 삼성카드의 숫자카드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카드 측에 따르면 이번 훈민정음 카드 시리즈는 디자인 작업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도록 세부 혜택을 최종 조율 중이며 기존 카드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카드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카드는 신상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세종대왕'을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스타K5' 방송에서 훈민정음 카드의 이미지를 노출시킬 방침이다.

이후 슈퍼스타 톱4가 확정되면 계약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훈민정음 카드의 TV CF 모델로 출연시킬 계획도 세웠다.

KB국민카드와 '슈퍼스타K5' 기획사 측은 "'슈퍼스타K5' 최종 선발전에 KB국민카드 VIP 이용자를 무료 초청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조현정기자

수익률 높은 '亞헤지펀드' 사볼까

美·유럽의 2배 수준인 10% 일반인 '공모형 롱쇼트'틈

아시아 헤지펀드의 몸집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 자금이 5억원 이상이므로 일반인이 투자하기 어렵지만 헤지펀드와 유사하게 운용되는 공모형 롱쇼트 상품 등은 일반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여유 자금 내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다.

22일 정보제공업체 유레카헤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아시아에서 운용되는 헤지펀드에 총 144억 달러가 순유입돼 총 운용액이 1408억 달러가 됐다.

이는 지난 2007년에 기록한 정점인 176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이 기간 10.1%로 북미 6.4%, 유럽 5%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 투자는 1.4% 손실이 났으나 일본과 중국은 각각 21.2%, 11.5%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 속에서 일정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공모형 롱쇼트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롱쇼트펀드란 저평가 주식을 사고(롱), 고평가 주식을 파는(쇼트) 매매 기법을 활용해 시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실제로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펀드 자금의 이탈 행렬에도 불구, 16개 공모형 롱쇼트 펀드에는 한 달새 1000억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다만 운용사의 운용력 등 투자 환경에 따라 상품의 수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상품의 절대 수익률 달성 정도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쉿! 뉴욕이 반한 '침묵 식당'

조선미 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컨테이너·교도소·암흑 등 별난 콘셉트 식당들 성업

"쉿! 식사 도중 말하면 쫓겨납니다."

세계 곳곳에 이색 테마 식당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뉴욕에 '침묵의 레스토랑'이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먹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잇(Eat)'을 간판으로 내건 침묵의 레스토랑. 이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말을 한 마디도 할 수 없다. 휴대전화도 꺼두어야 한다. 이른바 '묵언 수행' 규칙을 어기는 고객은 식당 밖 변지로 쫓겨난다.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 침묵의 레스토랑이 나타나자 시민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칼로 고기를 써는 소리, 물을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면서 "수행자처럼 식사하는 분위기에 웃음이 터져 잠시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식당은 유기농 야채로 만든 샐러드와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 4단계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가격은 40달러 정도다.

식당의 수석 주방장인 니콜라스 나우먼은 "인도 어떤 종 승려들이 말없이 아침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침묵 식사 콘셉트를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나우먼은 "소음에 지친 시민들이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며 음식의 깊은 풍미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화물 컨테이너 식당' '교도소 식당' 등 독특한 콘셉트를 내세운 식당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컨테이너 식당' 플래툰 쿤스트할레의 톰 부셔먼 대표는 "식다른 분위기와 이벤트를 좋아하는 젊은층 덕분에 가게 매출이 매년 쑥쑥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인 독일 베를린에서는 '암흑 식당'이 인기인데 커플들이 자유롭게 닭살 돋는 애정 표현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seonn@

저렴의 아이폰… 9월 美 점유율 1위 탈환

아이폰의 저력이 또다시 발휘되고 있다.

홍콩 기반의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신제품 아이폰5S·5C를 앞세운 애플의 9월 미국 휴대전화 시장점유율이 39%로 삼성전자를 10%포인트 차로 제쳤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월간으로는 역대 최고다.

애플은 7월과 8월 각각 22%와 17%로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지만 아이폰5S와 아이폰5C를 내놓은 9월에 전달 대비 22%포인트나 급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스마트폰 이젠 '패션 폰'

갤럭시기어 테마 캣워크·컬러입은 아이폰5C 등 '멋 마케팅' 활발

패션쇼에 선 갤럭시 시리즈, 분홍 옷을 입은 아이폰… 스마트폰이 패션을 '입고' 있다.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기어는 23일 여의도 IFC몰에서 열리는 서울패션위크 '패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전한 노트3+기어' 패션쇼 패션모델로서 무대에 선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 최철용·이석태·최범석이 연출하고 톱모델 이현이 등이 출연하는 이 패션쇼는 갤럭시 시리즈를 활용한 비즈니스 패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서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기어는 지난 16일 열린 제일모직 여성 브랜드 '구호' 10주년 기념 패션쇼 무대에 서기도 했다.

25일 정식 출시를 앞둔 아이폰5C는 분홍·노랑·파랑·초록·흰색 등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나온다. 그동안 무채색 디자인을 고집하던 애플이 총천연색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슬로건 '인생은 컬러풀'을 내세운 아이폰5C는 국내 예약 판매만 결과 SKT와 KT 기준 각각 13분과 7분 만에 5000대가 주문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기어를 몸에 지닌 채 길거리 패션쇼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팬택은 스마트폰 겉옷과 속옷을 따로 디자인한다. 팬택은 최신작 '베가 시크릿 노트'의 후 화면 레이아웃 디자인을 강화한 '베스트 디자인 폰' 10종류를 공개했다. 전작 베가 아이언에는 특수 케이스 '베가 아이언 수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 생소한 손목 스마트폰 갤럭시 기어가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루 종일 소지하는 IT기기는 사용자의 멋을 드러내는 패션 소품인 만큼 패션 마케팅 접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metroseoul.co.kr

쏘울 5년 만에 완벽 변신 22일 열린 기아자동차 '올 뉴 쏘울' 신차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 뉴 쏘울은 기아차가 2008년 쏘울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로 개성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뉴시스

홈플러스 사장 국감출석 2관왕?

출장 이유로 한번 불참 　남은 2개안 증인 참석할듯

3곳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아 소위 '국감 증인 3관왕'을 기록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남은 상임위 일정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도성환 사장이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도 사장은 22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 각종 자료를 검토 중이며, 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사장은 현재 31일 정무위원회,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도 사장은 유해 가습기 사건과 관련 환노위에서 지난 15일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상임위 국회의원들로부터 '도피성 출장'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미운털이 박힌 상황이다. 환노위는 11월 1일 열리는 상임위에 재출석을 의결했다. 산자위에서는 입점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 사장의 산자위 증인 출석을 요청한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입점 업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tk@

에너지 공기업 연봉 화제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2011~2013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평균 300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2013년(임금 협상 진행 중인 곳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220만원에 달했다. /박국명기자

대일본 수출 증가율 둔화

●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큰 폭으로 둔화됐다.

2월 전년 동월 대비 17.19% 감소한 대일본 수출 증가율은 8월 13.32%까지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재영기자

네이버 vs 다음 2R '모바일 전쟁'

포털 양강 네이버와 다음이 모바일 시장을 놓고 2라운드 대결을 한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가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평정했지만 아직도 개척 분야가 남아있는 모바일의 경우 승부가 나지 않았다.

국내에 국한된 온라인과 달리 모바일은 글로벌 소비자를 타깃으로 할 수 있어 모바일 시장에서 이겨야 최후의 승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게임,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라인은 전 세계 3억 명이 사

NAVER

글로벌 메신저 '라인' 타고 "스카이프와 겨룰 만" 극찬

용할 정도로 해외시장에서 필수 앱으로 통하는 몇 안 되는 '한국산 킬러 콘텐츠'다.

해외 유력 언론도 라인을 등에 업은 네이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무료 통화 앱 라인이 스카이프와 실리콘밸리에 도전한다'는 기사를 타전하며 "페이스북이 3년간 올린 실적을 라인은 1년 만에 했다"고 치켜세웠다.

네이버는 라인을 축으로 한 모바

Daum

메일 앱-풍성한 콘텐츠 힘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1위

일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아 2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21조9201억원을 마크하면서 유가증권시장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느덧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LG화학과 같은 거물 기업도 네이버 뒤에 서고 있다.

다음 모바일은 국내 선호도가 높다.

지난 3월 출시된 '다음 메일' 앱은 17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출시 5개월 만에 순사용자 110만 명대를 기록하며 e메일 앱 사용률 1위에 올랐다.

'다음 웹툰' 앱은 6월 출시 이후 안드로이드 기준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현재까지 꾸준히 다운로드 상위권에 올라있다.

게다가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스토리볼은 매월 50만 명의 방문자와 만나고 있다. 이곳에는 문학·여행·라이프·건강 등을 망라한 콘텐츠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인기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위한 다음의 투자·인수도 활발하다.

지난 7월에는 캐시슬라이드와 TNK팩토리를 인수하며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했고 9월에는 스마트폰 런처 개발사 버즈피아를 인수,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했다. /최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블랙아웃의 공포 이통사가 막는다

ICT로 에너지 절감 눈길

통신업계가 최근 원전 사태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조명 제어 솔루션(iLS) 등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

KT는 BEMS를 제주 시내 5개 빌딩에 구축, 실증단지로 운영 중이다. 또한 구로이마트, BC카드 휴지센터 등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국책 과제인 한국형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K-MEG)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마포 에너지통합운영센터를 통해 현재 110여 개소의 전력 수요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SK텔레콤은 '클라우드 BEMS' 서비스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BEMS 운영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에너지 절감 실현을 위해 각 고객사에 대한 모니터링·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능형 조명 제어 솔루션인 U+Biz iLS'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에너지 절감 사업에 주력하면서 실제로 이를 적용한 기업 및 호텔, 병원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적용 사업자에게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블랙아웃 등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jcha@

"대기업 신입 공채 늘릴 것"

청년위원회 출범 100일 남민우 위원장 간담회

"40% 밑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은 청년 고용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출범 100일째를 맞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남민우 위원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아이디어는 12월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2000여 명의 젊은이를 직접 만났고 11만9000여 명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들었으며 전국 6087㎞를 이동하며 타운홀 미팅을 20여 차례 가졌다"며 "창업과 취업을 양대 축으로 세우고 여러 정부 부처와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위는 지역 순회 일자리 상담을 위한 '청년버스'를 가동한다. 또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창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역특성 일자리, 26만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해외 취업을 위한 K-무브 등

청년위원회 남민우(왼쪽 넷째) 위원장과 청년위원들이 '청년박스' 앞에서 출범 100일을 기념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맞춤형 대책 등도 마련했다.

남 위원장은 "1980~90년대 높은 위상을 지녔던 잡학퀴즈와 비슷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기 재기 펀드 등으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남 위원장은 "최근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채마저 비용 등의 이유로 경력직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삼성 등 대기업과 함께 신입사원 위주의 채용 문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규빈기자 kmlee@

벡스코는 지금 '유람선의 바다'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부산 재조선해양기자재전'에서 관계 관계자들이 초호화 유람선 등 각종 선박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다인 55개 나라 1590개사(2420부스)가 참가했다. /연합뉴스

벼룩시장의 새 브랜드 '벼룩시장구인구직'

생활정보 미디어 벼룩시장이 구인·구직 카테고리를 별도의 브랜드인 '벼룩시장구인구직'으로 론칭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발표했다.

벼룩시장은 '벼룩시장구인구직' 브랜드 출범과 함께 새로운 TV 광고를 최근 방영하고 있다. 이번 CF는 앞으로도 만나야 할 일과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벼룩시장의 철학과 함께 구인·구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담고 있다.

구인·구직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나쁨의 문제가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며, 벼룩시장만의 믿을 수 있는 콘텐츠와 앞서가는 시스템으로, 구인·구직의 확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퇴직률 13% '업계 절반' 호기심 많은 인재 선호

"자체 기술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국내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프라웨어에서는 새로운 스토리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호 인프라웨어 경영관리팀 이사는 구직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인프라웨어에서는 대기업에서 맛보기 힘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무 환경이 좋은 것 같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다. 이 덕분인지 퇴직률이 13%로 IT업계 평균인 30%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올해 뽑은 인턴직원 8명 모두 이번 공채에 지원하는 것도 회사 분위기를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필기전형 방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지난해에는 주관식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으로 변경했다. 전공에 대한 기초가 있는 지원자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교과서만 달달 외운 지원자는 배제된다.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OS)에 따라 인식하는 메모리 크기가 차이 나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를 고민해봤다면 면접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김재호 인프라웨어 경영관리팀 이사

<월 1회> <10년 장기 근속자>

4시 퇴근·한달 휴가 '일할 맛'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인프라웨어 ②

'IT개발자의 천국'.

모바일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인프라웨어에서 접할 수 있었던 느낌이다. 자유분방함은 물론이고 직원들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가 여느 IT업계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다른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인프라웨어에는 다른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발자 우대 정책이 다양하다. 팀 관리 등에 관심 없는 개발자의 경우 직급이 올라가도 기술 개발에만 전념해 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듀얼 커리어 패스(Dual Career Path)'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로 이미 4명의 기술 이사가 탄생했다.

'직무 발명 보상금' 제도도 눈에 띈다. 직원 누구나 특허를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과를 거두면 보상금까지 지급한다. 이 덕분에 인프라웨어는 현재 등록된 특허만 82개, 심사 중인 특허 61개, 출원 중인 특허 362개를 자랑한다. 특히 서비스개발팀의 유성욱 과장의 경우 2년 동안 무려 13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출근 시간(오전 8~10시), 퇴근 시간(오후 5~7시)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탄력근무제, 매월 1회 모두 4시에 퇴근하는 리플레시 데이, 만 5·7·10년 근무자에게 휴가비와 함께 최대 한 달 휴가를 보장하는 장기 근속자 우대제도 등도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인프라웨어 직원들이 사내 휴게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벤처 1세대… 모바일 오피스 세계점유율 60% '탄탄' 특허출원 직원 보상금 주고 대졸초임 대기업 수준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1997년 벤처 1세대로 등장한 인프라웨어는 주력인 모바일오피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무려 60%다. 최근에는 모바일게임·e북 시장에서도 잇따라 성과를 내며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14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무려 286% 증가한 55억원에 달한다.

대졸 초임도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은 3200만원. 매년 4월경 성과에 따라 상여금도 받을 수 있다.

◆내달 10일까지 신입 공채 진행

인프라웨어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입 공채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30명 내외를 뽑을 예정이다. 지원부서 등의 공채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따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8일부터 성균관대(수원), 금오공대,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경희대 등에서 캠퍼스 리크루팅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인프라웨어 홈페이지(recruit.infrawa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lee@metroseoul.co.kr

발효 2번·공기 빼기… 길구나, 식빵 탄생기

김현정 기자의 투잡 체험기

제과 제빵 ④

이번 시간엔 베이커리의 필수 메뉴인 식빵 만들기로 본격적인 제빵에 도전한다. 반죽 섞기에서부터 발효까지 식빵을 만드는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먼저 체로 받친 가루 재료를 반죽 믹서기에 넣고 섞다가 중간에 버터를 넣고 다시 돌린다.

반죽을 한 덩이 떼어내 양손으로 잡고 늘렸을 때 손가락 지문이 반죽에 비칠 정도로 매끈하게 늘어나면 반죽이 완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1차 발효를 위해 비닐을 덮은 반죽을 발효실에 50~60분가량 둔다.

타이머를 켜두고 발효 시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식빵에서 발효 정도가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제대로 된 식빵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없다.

1차 발효가 끝났으면 반죽을 꺼내 온도계를 찔러 온도를 잰다. 적정 온도가 됐다면 반죽을 일정량씩 떼어내 저울에 달아 무게를 똑같이 맞춘다.

제과 제빵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개별로 떼어낸 반죽을 공 모양으로 말고 있다. /김현정기자

이후 개별 반죽을 양손으로 둘러서 공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다.

중간 발효를 위해 공 모양 반죽들 위에 비닐을 덮어두고 15~20분 정도 놓아둔다. 이후 밀대로 개별 반죽을 하나씩 밀어서 편다.

이때 반죽 안의 가스를 빼내면서 두께가 일정하도록 펴는 게 중요하다. 펴진 반죽은 김밥을 말듯이 원통형으로 말아 식빵 팬에 넣는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왔다. 2차 발효를 위해 발효실에 개별 팬을 넣고 30~40분을 기다린다.

드디어 모든 발효가 끝나면 개별 팬을 꺼내고 커터칼로 반죽 윗면의 가운데에 길게 세로선을 긋는다. 보통 빵집에서 식빵 윗부분이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되는 게 이 과정에서 나온다.

식빵 윗면에 그어진 선을 따라 짤주머니에 버터를 담고 짜준다.

오븐에 지금까지 완성된 개별 팬의 반죽을 넣고 30~35분 구우면 완성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제과·제빵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제과·제빵 역시 많이 만들어볼수록 실력이 는다. 다만 반죽 믹서기와 발효실 등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전문적인 베이킹 도구가 필요하므로 기능사 준비생이 개별적으로 연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과·제빵 파티셰를 원한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도를 발휘해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디저트 카페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 제과 강습을 수강한다.

/hjkim@

주연테크 컴퓨터

주연테크 컴퓨터는 Windows 8 을 권장합니다.

주연테크 고객감사 '초특가' 한정판매!

운수대통S324A + 20형 LED모니터 포함

789,000원

운수대통 G23A

-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G2030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4GB(1066MHz) DDR3 RAM
- S-ATA2 500GB HDD(7200RPM)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579,000원

엑설런트 V347C

- 인텔® 코어™ i5-34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8GB(1066MHz) DDR3 RAM
- S-ATA2 500GB HDD(7200RPM)
- nVidia Geforce GT63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899,000원

엑설런트 AV357H

- 인텔® 코어™ i5 35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8GB(1066MHz) DDR3 RAM
- S-ATA2 1000GB HDD(7200RPM)
- nVidia Geforce GTX65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999,000원

주연테크 쇼핑몰에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jooyon.co.kr)

공통사양

구입문의

070-7600-2375

주의사항

컴퓨터 구입! 왜? 주연테크 컴퓨터 일까요?

하드웨어 24개월 무상수리!

365일 서비스 상담전화

1588-1118

출장 A/S 저녁 9시까지 연장!

소프트웨어 1개월이내 1회 무상서비스!

Made in Korea

친환경 친건강 컴퓨터

탄탄한 기업 주연테크

고객님의 말씀을 대표이사가 직접 듣습니다.

주연테크 컴퓨터 www.jooyon.co.kr

느긋한 여행이 진짜 여행

새로 나온 책

시·소설

멍키스패너 프리모 레비/돌베개

인간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일까 아니면 감춰진 창조력을 일깨우는 자유의 도구일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떠돌이 조립공 파우소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노동', '일과 자유'에 대해 흥미롭고도 진지한 성찰을 시도했다.

예술

미술사를 움직인 100인 김영은/청아출판사

미술 작품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문화적 업적이다. 책은 13세기부터 현대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화·조각·판화 등 미술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시대를 빛낸 100인의 미술가들의 삶과 시대·작품에 대해 소개한다.

밤의 여행자들 윤고은/민음사

재난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둘러보는 상품만 판매하는 여행사 직원 '고요나'가 사표를 던졌다가 한 달 뉴 ... 의 싱크홀로 떠난다. 재난의 이미지로 상품을 만드는 세상, 재난을 목격하며 자기 삶의 안전을 확인하는 인간을 그리며 묵시록적 세계를 그려나간다.

자기계발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 정영재/팬덤북스

프로 직장인은 비전부터 남과 다르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한다. 10명 중 9명이 여전히 꿈꾸는 시대에 비전이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비전을 실현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도 얻을 수 있다.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 권혁웅/창비

책의 목차를 열어보면 주부노래교실, 천변체조교실, 찔가마에서의 두 시간 처럼 일상의 구체적인 장소들이 줄줄이 나온다. 이런 장소를 떠올리며 펼쳐지는 우리의 웃기지만 진지한 일상. 그 일상에 얽혀있는 저릿하고 먹먹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고민하는 내가 아름답다 유종은/카인코리아

그 어느 시기보다 싱기가 넘쳐 행복해야 하지만 요즘 청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좌절의 시기를 겪기도 하고 자극적이며 재미만을 강조하는 디지털 사고에 중독되어 점차 생기를 잃고 있다. '청춘은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라는 희망을 꿈꾸기 위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건강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판미동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임상 사례에 근거해 놓아버림 효과를 증명한다. 저자는 "우리 안의 부정성과 왜소함을 직시하려면 자신에 대한 성직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며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30대란 인생에서 무엇인가 김욱진/오늘의책

직장과 가정, 친구와 연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며 힘들어하는 30대들을 위한 이야기다. 방황하는 30대 남녀들에게 30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왜 30대가 가장 찬란한 시기인지를 진지하면서도 신선하게 일러주고 있다.

정치·사회

오프라 현상으로 윈프리를 읽다 이혜정/스마트비즈니스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른 사람이다. 그는 계부 밑에서 사생아로 자랐으며 비참한 가난을 견디지 못했던 것과 미혼모가 됐던 사실까지 그동안 겪어온 아픔을 절대 잊지 않고 거만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반기문의 꿈 김용의 도전 서정빈/부한

3년6개월간 뉴욕특파원으로 활동한 저자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에게서 성공 메시지를 찾는다. 반 총장에게는 꿈, 열정, 변화, 겸손 등의 덕목을 배우고 김 총재에게서는 도전, 긍정, 소통과 경청 등을 맛본다.

빡빡한 투어 일정은 그만! 새 여행 트렌드 안내서들

다시 파리에 간다면 오오쓰/어바

여행처방전 이화자/둥지북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일하듯' 한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려는 신입사원처럼 무작정 열심이다. 짧은 시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봐야 하고 먹어야 한다.

'다시 파리에 간다면'의 저자 모모미는 "자기 자신을 천천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진짜 목적"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책에서 파리에서 하고 싶은 40가지를 소개했다. 주로 공원, 식물원, 예술가들이 모인 동네, 조용한 산책로 등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파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혼자 조용하게 파리라는 도시를 마음껏 사랑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귀띔한다.

카피라이터와 대학교수 생활을 청산하고 세계 80개국 400여 도시를 여행한 여행작가 이화자씨 역시 "좋은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듯 좋은 여행이 정신을 건강하게 해준다"며 "더 싸게 더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는 방식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대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힐링 여행'을 하라고 권한다.

그는 에세이 '여행처방전'을 통해 상황별, 감정별로 좋지 않은 증세를 치유해줄 여행지를 추천했다.

예를 들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는 태국의 자유 마을 빠이, 아이디어가 고갈된 느낌이 들 때는 아일랜드 문학도시 더블린, 사랑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인도의 평화마을 공동체인 오로빌,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일 때는 탄자니아 금정의 도시 잔지바르 등을 가보라고 소개하는 식이다.

오스카 와일드, 체 게바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각각의 여행지에 얽힌 유명인들의 이야기와 저자가 직접 만났던 여유 없는 현지인들의 이야기는 책 읽는 묘미를 더해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게이하리의 처절한 격식

1830년경에 그려진 '여성을 들러 감는 올바른 모습'은 코르셋을 착용하는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시대를 통틀어 여성들은 잘록한 개미 허리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코르셋인데,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은 물론 통통한 시골 아낙네까지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코르셋 안에 살을 구겨 넣기에 집중해야 했다. 16세기 프랑스의 여왕이었던 카트린 드 메디치는 허리 둘레를 33cm(13인치)로 만들기 위해 철로 된 코르셋을 만들기도 했다. 이 코르셋으로 꼭일 조금씩 몸을 조이면서 갈비뼈도 몇 개 부러졌을 것이다. -'자세니름'(박혜라 국스/무플러스북스) 중- /박지원기자

기나 긴 여생 '명품 시니어'로 사는 법

화제의 책

멋있게 품위있게 김분국/센추리원

100세 시대다. 60대에 은퇴를 해도 꽤 긴 시간의 삶이 남아있고 50대에 은퇴를 한다면 살아온 만큼의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도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퇴 후 더 멋진 삶과 품위 있는 인생을 그려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금·창업·재취업 등 새로운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또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은 다수의 중장년층은 소외감과 무기력증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시니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 먹고 살지에 대한 '삶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다.

책은 삶을 더 맛있고 품위 있게 만들어야 하는 '명품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을 긍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법부터 나이들수록 낯선 것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불필요한 분노와 후회를 내려놓는 법 등 나이 들수록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생 경영법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윤재웅기자 ...@...

치료없는 성급한 '모발이식' 경계해야

난치성 탈모병원 모리치피부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청소년까지 탈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탈모증으로 인한 진료 인원은 2007년 16만 명에서 2011년 20만 명으로 5년간 약 4만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M자형 탈모나 정수리 탈모 환자의 연령대가 20대 초중반으로 젊어지고 있다.

◆난치성 탈모 조기 치료 시 수술 없이도 가능

네이버 카이스 모발 상담 전문의이자 '털 박사'로 유명한 모리치피부과 오준규 원장은 기원 후 12년 동안 3000케이스 이상의 모발 이식수술 경험과 2600케이스 이상의 난치성 탈모질환 치료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 오 원장에 따르면 난치성 탈모질환 2600케이스 중 1800여 케이스는 수술 없이 체계적인 치료 관리만으로 탈모를 극복했다.

탈모가 나타나면 환자들 대다수가 성급하게 수술을 선택하지만 자칫 수술에 실패하게 되면 환자가 받는 고통은 매우 커진다. 오 원장은 "대다수 탈모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조급해져 섣부르게 수술을 받지만 치료적인 접근 없는 모발 이식은 또 다른 수술을 부를 수 있다"며 "치료적 접근 없는 수술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이포 써머솔, 모발 이식 후 생착률 98% 효과입증

모발이식수술 역시 진화 중이다. 최근에는 최초 모발이식수술 후 생착률을 안정적으로 높여주는 새로운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간, 신장 등 인체 주요 장기 적출 시 조직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줌으로써 활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하이포 써머솔'이 국내 모발이식에도 적용돼 수술 후 모낭 생착률이 배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에르너 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포 써머솔 모낭 보관 용액과 온도의 급격한 변화 없이 일정 온도에서 보관 관리한 이식된 모발의 경우 일반 샐라인 보관 용액보다 높은 평균 생착률 98% 이상의 임상 결과를 보였다. 또 미국 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년 전부터 모든 모발 이식에 하이포 써머솔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리치피부과만이 유일하게 원내 모든 모발 이식에 하이포 써머솔을 적용해 생착률 논란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기타 병원들보다 진일보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리치피부과 관계자는 "국내 모든 모발이식 수술에 하이포 써머솔 용액의 사용이 불가피 할 것이란 중론 속에서도 하이포 써머솔은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용기자

'1000만의 병' 탈모증 치료 병행 후 증세따라 맞춤형 모발이식해야 '극복'

모리치피부과 오준규 원장이 탈모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발이식수술 장면

단풍 가리는 얄미운 알레르기 결막염

환절기 면역력 저하 원인 눈곱·눈물 잦으면 '의심'

일반적으로 봄, 여름에 알레르기 결막염에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 결막염 환자 수를 월별로 분류한 결과 10월 평균 환자 수가 33만 명으로 가장 높았다.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절기, 알레르기 결막염을 대비할 때다.

눈곱과 눈물이 자주 생긴다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은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털, 화장품 등이다. 또 가려움증, 충혈,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 눈부심, 눈꼽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이런 알레르기 결막염은 대부분 급성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 금방 호전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국 환경청이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2~7배 더 오염돼 있다. 집 내부의 알레르기 결막염 주요 원인은 집먼지 진드기와 미세먼지로 철저한 침구류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침구류를 세탁하고 틈틈이 일광 건조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실내 공기순환을 위해 자주 환기를 시키고 애완동물의 털, 비듬 등도 조심해야 한다.

집 밖에서는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피해야 한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꽃가루가 날리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물질이 낄 가능성이 높은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가려움, 충혈,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안약을 점안하면 각막염·녹내장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송스베라' 국민비타민 신고식

JW중외제약 건강식품 출시 오늘밤 NS홈쇼핑 통해 판매

식물성 성분이 다량 포함된 신개념 건강기능식품이 나왔다.

JW중외제약은 영국산 비타민 C와 다량의 식물성 성분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송스베라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스베라는 비타민 C에 의한 항산화 작용에 대한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으로 유해 산소를 줄여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국내에서 비타민 C와 함께 적포도 추출물, 포도 과피 등 식물성 성분이 80% 이상 함유된 제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 콘셉트에 맞춰 방송인 송해씨를 모델로 선정했다"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송스베라가 국민 비타민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은 23일 오후 9시 40분 NS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박스터 '자원봉사의 날' 행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박스터가 지난 21일 '박스터 자원봉사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 과학캠프', '사랑의 제빵 봉사' 등의 나눔 프로그램과 함께 희귀질환 환아 치료 등기 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 중고 노트북을 경매 행사가 진행됐다.

/황재용기자

'휘팍 개장일' 맞추면 행운 펑펑

페이스북 경품 이벤트

휘닉스파크
개장일을 맞춰라! EVENT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는 2013~2014년 스키 시즌을 앞두고 '휘닉스파크 스키장 개장일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며, 휘닉스파크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pp.co.kr)을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된 퀴즈의 정답(예상 개장일)을 댓글로 남긴 뒤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대하면 된다.

휘닉스파크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시즌권 5매(1인 1매), 버즈런 스노보드 장비 풀세트(데크·바인딩·부츠) 1개, 리프트권(주간권) 10매, 워터파크 이용권 10매(1인 1매)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개장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휘닉스파크는 알뜰하게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도록 리프트권과 장비렌털권을 묶은 '모바일 세트권'을 선보인다.

이용객들은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스키 리프트와 장비 렌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세트권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19년산 글렌피딕 190병 한정 판매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이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19년산 위스키 '글렌피딕 19년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 마디이라 캐스크'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15세기 신대륙 발견을 위해 긴 여정을 떠난 포르투갈 탐험가들의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내에 190병 한정 출시됐다. /글렌피딕 제공

'갓 나온' 잔디로 골프공으로 생생기록

생산월 표기 2피스볼 출시

잔디로가 골프공에 생산 월을 표기한 제품을 출시했다.

잔디로 관계자는 "장시간 야외에 방치된 볼은 기록을 떨어뜨린다"며 "골프숍이나 물류창고에 오래 보관된 공 대신 생산공장에서 바로 나온 공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가격 거품과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잔디로의 생산 월이 표기된 2피스볼은 부드러운 타구감과 방향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기와 깊이가 다르고 유체학적으로 배열한 336 딤플 구조가 안정된 탄도와 경이적인 비거리를 제공한다.

2피스 주머니볼은 총 9알(백색 6알·컬러 3알)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만원이다. 제품은 잔디로 닷컴(www.zandaro.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2690-9000 /박지원기자

단풍색 옥스퍼드화…키높이 웨지슈즈

레스모아 나들이 신발 제안

레스모아가 단풍놀이철을 맞아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신발을 소개했다.

화사한 오렌지·민트·와인 컬러의 옥스퍼드화는 단색의 팬츠나 플레어 스커트에 매치하기 좋다. 부드러운 양가죽을 사용해 장시간 걸어도 발에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나들이에서도 여성의 자존심인 '키'를 포기할 수 없다면 웨지슈즈가 제격이다. 운동화부터 구두 스타일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웨지슈즈는 컬러와 디테일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하다. 베이지·브라운 컬러는 카디건과 쇼트 팬츠에 매치하면 발랄해 보인다. 반면 와인 컬러나 스터드 장식이 가미된 웨지슈즈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박지원기자

부담 큰 인공관절 '무료수술'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80%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인공관절 수술 통해 정상적인 활동 가능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노인들이 흔히 겪는 대표적인 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다.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구조 중 하나인 무릎관절 역시 노화를 피할 수 없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는데,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뼈의 연골이 노화 혹은 외상 등의 이유로 점점 닳아 없어지는 질환으로 말기에 이르면 걷기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수반한다. 현재 약물치료나 수사요법으로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며 퇴행성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해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즉 수술 후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다.

◆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엄홍길 휴먼재단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에만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이며 양쪽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수술 후에도 입원비니 간병비와 같은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비싼 수술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주위에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연장을 통해 신청

불황 속 팝업스토어 팡팡 열리네

제품 홍보·고객반응 확인 저비용 마케팅으로 인기

긴 불황에 정식 매장은 열지 않고 일정 기간만 운영한 뒤 접는 '팝업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뷰티·패션 브랜드들이 신제품을 선보이며 임시 매장을 잇따라 열고 있다.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전략이다.

클렌징디바이스 클라리소닉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팝업스토어(사진)를 오픈했다.

클라리소닉 PR 매니저 김잔디 차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알리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클라리소닉은 오픈 기념으로 31일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정품 브러시 제공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나다 구스는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비욘드 가라지에서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는 임시 매장으로 오픈 첫날 라이브 밴드 공연과 캠프파이어 등이 펼쳐진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캐나다 구스의 컬렉션과 함께 리바이스와 협업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pw@metroseoul.co.kr

테팔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테팔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테팔 사랑 나눔 바자회'를 22일 개최했다.

테팔 사랑 나눔 바자회는 어린이들의 꿈·건강·행복을 응원하는 테팔 브랜드의 가치를 담아,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프라이팬·블렌더·무선 주전자·커피메이커·토스터·다리미 등 테팔의 주요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모금된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굿닥터'로 3연속 흥행 성공 문채원

배우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시청률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만큼 드라마 흥행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문채원(27)은 KBS2 '공주의 남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에 이어 최근 종영한 같은 방송사의 '굿 닥터'까지 3연속 흥행 기록을 썼다. 그러나 높은 성과에도 정작 "높은 시청률을 바라고 출연한 게 아니다. 시청자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하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담담해했다.

"아~ 시온의 프러포즈신 최고예요"

◆발랄한 소아외과 2년차 의사역

드라마는 대학병원 소아외과를 배경으로 자폐성향의 서번트 증후군을 지닌 청년 박시온(주원)이 주위의 모진 시선과 장애를 극복하고 천재적인 의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문채원은 후배 의사 박시온을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장시키는 밝고 발랄한 성격의 소아외과 펠로우 2년차 의사 차윤서를 연기했다.

"의학드라마를 해보고 싶던 찰나에 '굿 닥터'를 만났어요. 의사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점, 후배이자 자폐 성향을 지닌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는 여주인공 등 많은 요소들이 신선했어요."

배역을 표현함에 있어서 감정 이입에 가장 중점을 뒀다는 그는 "내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하며 찍었다. 특히 기획 의도처럼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의 편견에 영향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찍었더니 나도 나중에 마음이 열렸다"고 연기 과정을 설명했다.

전작들에 이어 이번에도 주체적인 여성상의 캐릭터를 택했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자 "캐릭터를 선택할 때 내가 여배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로 남자 배우들이 맡 역할을 볼 때 욕심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뫼비'의 여친구의 연기에 대해 칭찬하면서 부러움을 숨김 내비쳤다.

◆발달장애 청년과 사랑 실제라면

소아외과 부교수 김도한(주상욱)을 오랜 시간 짝사랑한 차윤서가 끝내 장애를 가졌지만 순수한 박시온에게 끌리는 로맨스도 볼거리였다. 결말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풋풋하게 사랑을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리허설 또 리허설… 공들인 장면
작품 고를때 남자 역할 더 탐나요
내 실제 성격 배역보다 소극적

"윤서가 시온이의 고백을 받아주는 장면은 공을 상당히 들인 신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시청자들이 편민 없이 둘의 사랑에 공감해줬으면 해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주원이 '누나, 편하게 가자'고 해서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어요."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박시온 같은 인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지만 연기하면서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 모 배우는 인터뷰에서 작품을 찍을 때마다 배역에 몰입해 상대 배우를 사랑했다고 하던데 난 그렇게 끝인도는 놓지 않는다"는 재치 있는 대답으로 받아넘겼다.

◆자근자근 성장하는 연기자

데뷔 초 '바람의 화원' '찬란한 유산'에 출연할 때만 해도 얼굴 예쁜 여배우라는 인상이 강했고 '공주의 남자' 출연 초기에는 연기력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작품을 거듭하며 인정적인 연기력을 뽐내며 자근자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작에서 성장했다면 이번 작품에서 보였을 거예요. 이번에 성장한 점은 다음 작품에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내가 좋은 배우가 아니라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일 뿐일까봐 속상했어요. '좋은 의사가 되려는 마음만으로도 좋은 의사'라는 대사처럼 앞으로는 현실에 불만족하지 않기로 했어요."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맡은 배역들보다 소극적이라는 그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 사람 살리는 의사에 비하면 내 직업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며 "그저 작품을 하면서 내가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느낄 때 연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소박한 바람을 털어놨다.

/박진영기자 sk@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이코드미디어)·디자인/박은지

Star bag

유튜브 뮤직 어워드 3개 부문 후보

'월드스타' **싸이**가 유튜브 뮤직 어워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다음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이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사랑받은 음악과 뮤지션을 시상하는 행사다. 싸이는 '올해의 뮤직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 '유튜브 트렌드' 등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소녀시대는 올해의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일본 데뷔 앞두고 쇼케이스 개최

가수 **에일리**가 일본 데뷔를 앞두고 대규모 쇼케이스를 열었다.

에일리는 21일 도쿄 시부야 오이스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신의 히트곡 '에븐 앤 비욘세의 '크레이지 인 러브' 등을 빼어난 가창력으로 소화해 1300여 명의 관객을 압도했다. 앙코르 무대에서는 다음달 6일 발표할 일본 데뷔곡인 '헤븐'의 일본어 버전을 선사했다.

영화 '환구'서 여대생으로 열연

걸그룹 포미닛의 **권소현**이 영화 '환구'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권소현은 다문화 가정의 아픔과 성장을 조명하는 이 영화에서 여대생 미수를 연기한다. 미수는 태권도 국가대표에 도전하는 혼혈인 남자친구 환구를 응원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인물이다. '환구'는 영화 '용의주도 미스 신'의 박용집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이다.

일일극 '사랑은…' 주인공으로 발탁

걸그룹 씨스타의 **다솜**이 KBS1 새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다음달 4일 첫 방송될 '사랑은…'은 개인주의 세태 속에 가족의 고마움을 알아가며 타인에게 준 상처를 반성해가는 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일일극 최초로 뮤지컬을 소재로 다양한 뮤지컬 장면을 극중 삽입할 예정이다. 다솜은 노래와 춤에 능한 인물로 출연한다.

포스트 빅뱅 뽑는 '윈' 4개 채널-포털 생방송

신인 그룹을 뽑는 데 4개 방송 채널과 포털사이트가 동시 생방송하는 이례적인 빅 이벤트가 펼쳐진다.

YG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신인 남자 그룹 선발 프로그램인 '후 이즈 넥스트: 윈(이하 윈)'이 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엠넷·KM·온스타일·올리브 등 4개 채널과 포털사이트 다음에 생방송된다.

A팀(강승윤·송민호·김진우·이승훈·남태현)과 B팀(B.I·김진환·바비·송윤형·구준회·김동혁)이 자작곡과 댄스, 프로듀서 테디의 곡을 편곡하는 총 3가지 미션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승자는 '위너'라는 이름으로 빅뱅에 이어 7년 만에 YG엔터테인먼트의 남자 그룹으로 활동한다. 해외의 관심도 뜨겁다. '윈'이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로 중국에 독점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 회당 평균 100만 뷰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며 9화까지 총 1000만 뷰를 돌파했다. 또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88개 국에 전파를 타고 있다. /유순호기자

쫓기는 엑소… 쫓는 비스트

'멜론 뮤직 어워드' 온라인 1차 투표 진행 2%P차 '박빙'

올해 최고 아이돌 자리를 놓고 팬덤이 정면 충돌했다.

다음달 14일 개최되는 시상식을 앞두고 '2013 멜론 뮤직 어워드'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1차 투표에서 엑소(사진 왼쪽)와 비스트(오른쪽)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5일부터 멜론 뮤직 어워드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에서 엑소가 득표율 2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비스트가 20%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22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93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라인 1차 투표에 35만 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어느 해보다 올해 아이돌들의 대결이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음악 시장이 음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최대 업체인 멜론이 선정하는 순위는 실질적인 가요계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라 가수들은 물론 소속사의 팬들도 결과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엑소는 올해 신예 그룹 신드롬을 일으키며 음악 시장을 석권했다. 데뷔 2년째인 올해 발표한 정규 1집 'XOXO'는 리패키지 앨범을 포함해 100만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건모와 god 이후 12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도전한다.

비스트는 올해 2년2개월 만의 정규앨범이자 1년 만의 컴백 앨범인 2집 '하드 투 러브 하우 투 러브'를 발표해 여름 음악 시장을 석권했다. 선공개곡 '괜찮겠니'와 '아임쏘리'를 시작으로 수록곡 전체가 인기를 모았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 결과(20%)와 사전 음원 점수(80%)를 합쳐서 본상 후보 톱 10이 결정된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17세기 파리,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10월 29일 1차 티켓오픈
2013.12.13~2014.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음반·공연·드라마>

아이유 세마리 토끼 잡기

음원 올킬에 이어 '예쁜 남자'로 안방극장 공략

아이유(사진)가 올 연말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아이유는 KBS2 수목극 '비밀' 후속으로 다음달 20일 시작할 '예쁜 남자'에 여주인공 김보통 역으로 출연한다. 외모, 스펙, 배경 등 모든 것이 보통인 여자지만 예쁜 남자 독고마테(장근석)에게 첫눈에 반한 후 그를 사수하기 위해 애쓰는 역을 연기한다.

이달 초 3집 '모던 타임즈'를 발표하자마자 각종 음원차트를 '올킬'한 아이유는 이 여세를 몰아 안방극장도 장악하겠다는 각오다. 새 앨범에선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드라마에선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어필할 예정이다.

이번엔 가수와 연기자로 시차를 두고 활동했던 이전과 달리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5월 미니앨범을 발매한 후 이달 3집을 발매하기 전까지 KBS2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을 찍으며 연기자 활동에만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한류스타 장근석과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아이유가 해외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쏠리고 있다.

제작사 그룹에이트 측은 "독고마테에게 보통의 매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줄 김보통 역을 아이유가 120% 소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독특한 로맨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드라마 촬영에 나설 아이유는 이 시기 연말 콘서트 준비에도 돌입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드라마 첫 방송 직후인 다음달 23~24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모던 타임즈'를 연다.

/하진형기자 tsh0427@metroseoul.co.kr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38화 글·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을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펴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연인으로 만났어요" 이연희(왼쪽)와 옥택연이 아주 오랜 연인으로 만났다. 결혼을 1주일 앞둔 네 커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결혼전야'(다음달 21일 개봉)에서 이들은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지만 익숙한 감정으로 권태에 시달리는 커플을 연기했다. 옥택연은 22일 제작보고회에서 "7년 사귄 연인이 있다면 결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사진/연합뉴스

2AM 창민 뮤지컬 '친구' 주인공 발탁

"연기 스펙트럼 넓히고 싶다"

배우 안재모와 2AM 창민이 뮤지컬 '친구'의 주인공을 맡아 원작 영화의 장동건, 유오성의 바통을 잇는다.

이 뮤지컬에서 영화 속 장동건이 연기한 동수 역을 맡은 안재모는 2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영화와의 비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떨리고 긴장되지만 그만큼 설레고 기대된다"고 털어놨다.

다른 배우들보다 뒤늦게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준석 역으로 합류한 창민은 "고향인 부산에서의 공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 공연은 다음달 29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하며, 두 사람 외에 조형균·김찬호·김지훈·권민수·조윤영 등이 출연한다.

22일 뮤지컬 '친구' 제작발표회에서 하이라이트를 시연하는 배우들 /뉴시스

이날 배우들은 '케세라세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냄새' '친구' 등 총 4곡의 장면을 시연했다.

/박건형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 went to see my doctor for a check-up. 병원에서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나 어제 검진을 위해 주치의를 만나러 갔었어.
B. I should do that soon. What did the doctor say?
A. He said I'm healthy overall.
B. That's excellent!
A. He made one negative comment, though. 의사는 내가 좀 과체중이래.

정답 I went to see my doctor for a check-up yesterday. / The doctor said that I'm a little overweigh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Are you on any medication now?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나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음을 말할 때 전치사 on이 많이 쓰입니다. medication은 '투약'이라는 뜻으로 on medication이라고 하면 '약을 지료 중인' 의 뜻이 됩니다. 위 문장에 대한 답으로 '현재 혈압 약을 복용 중이다'라고 한다면 I'm taking blood pressure pills.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알약을 가리켜서 pills라고 하죠.

약은 일반적으로 medicine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를 물을 때 Are you taking any medicines?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약' 그 자체를 강조하는 문장이 됩니다.

과거진행시제 긍정문

▶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진행되고 있던 일을 얘기할 때 '~하고 있었다'의 의미로 쓰며, be동사의 과거형인 was, were 뒤에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v-ing를 붙인다.

주어	동사	
I	was	v-ing
you/we/they	were	
he/she/it	wa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짜기: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was driv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 나는 운전 중이었어.
2. Kate was waiting for someone. 케이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 We were going to the mall at 2 p.m. 우리는 2시에 쇼핑몰에 가고 있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National Roadway Service advises drivers to be ______ during wet road conditions.
(A) caution (B) cautiously
(C) cautious (D) cautions

02 Jurassite Series 3 bicycles are designed ______ for long-distance travel.
(A) specifies (B) specified
(C) specifics (D) specifically

01 국립 도로 관리국은 운전자들에게 젖은 도로에서는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해설 be동사와 이어지므로 to be 뒤의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인 cautious를 쓴다.
어휘 wet 젖은 caution 주의, 경고 cautious 조심스러운
정답 (C) cautious

02 쥬라사이 시리즈 3 자전거들은 장거리 여행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
해설 빈칸 앞에는 동사의 수동태형, 뒤에는 전치사 for로 시작하여 용도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므로 동사 are designed를 수식하는 부사 (D) specifically를 써야 한다.
어휘 design 설계하다, 고안하다 specify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specified 명시된 specifically 특별히
정답 (D) specifical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사진을 소개하기

사진을 소개할 때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시작해도 좋지만, 눈에 띄는 대상을 언급하여 사진 소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눈에 띄는 중심 대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This is a picture taken in a classroom. 이것은 교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teacher and some students. 이것은 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It looks like it's a classroom. 이곳은 교실인 것 같습니다.
This picture looks like a classroom. 이 사진은 교실처럼 보입니다.
This picture shows a classroom. 이 사진은 교실을 보여줍니다.
In this picture, there is a woman giv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이 사진에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Tip 사람+동사의 -ing

-ing 형태의 현재분사는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을 수식합니다. 이때 -ing 앞에는 who is 또는 who are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is/are를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There is a teacher is wearing a hooded shirt. (x)
→ There is a teacher wearing a hooded shirt. (o)

"RYU는 아티스트"

매팅리 감독 다저스 결산 인터뷰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 구단이 류현진(26)의 올 시즌 활약을 극찬했다.

다저스 네드 콜레티 단장과 돈 매팅리(작은 사진) 감독은 22일(현지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결산 기자회견에서 한목소리로 류현진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콜레티 단장은 "야시엘 푸이그와 류현진 같은 젊은 선수들이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류현진은 기대했던 대로 잘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던 재능을 지녔고 나올 때마다 잘 던졌다. 류현진이 선발 등판할 때마다 늘 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1년 전 류현진을 영입하겠다는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팅리 감독은 더욱 섬세하게 류현진의 활약상을 칭찬했다. 그는 "스카우팅리포트를 봤을 때와 스프링캠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던졌다"며 "내가 보기에 류현진은 아티스트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매팅리 감독은 "긴장해서 딱 한 경기를 망쳤을 뿐이지, 늘 좋은 투구를 했다. 더 잠상 될 여지가 있는 선수"라고 류현진의 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매팅리 감독

미국 언론들도 올 시즌을 결산하며 류현진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 인터넷판은 22일 다저스의 챔피언십시리즈를 돌아보며 3선발 류현진이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마크 색슨 기자는 "류현진이 7차전에서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는 게 흥미진진했을 텐데 볼 수 없게 되어 나빴다"고 전했다.

NBC 스포츠는 '올 시즌 LA 다저스 최고의 순간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11가지 명장면을 꼽았고, 류현진이 5월 29일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둔 순간을 5번째로 소개했다.

한편 다저스는 내년 시즌 야수진을 대폭 물갈이하며 쿠바 망명 선수인 내야수 알렉산더 게레로와 4년간 2800만 달러(약 297억원)에 계약했다. 게레로는 주전 2루수나 유격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청용 노리는 에버턴·선덜랜드

볼턴 "이적 가능성 없어… 그도 원하지 않을 것"

이청용(25·볼턴 원더러스·사진)이 여전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스타는 22일 "에버턴과 선덜랜드가 한국의 에이스 이청용과 사인하기 위해 치열한 선두를 벌인다"고 보도했다. 에버턴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올 시즌 좋은 출발을 하고 있음에도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추가로 선수를 영입해 리빌딩을 노린다고 데일리스타는 전했다.

또 "선덜랜드는 지난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청용의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 리그 최하위에 그치고 있는 선덜랜드가 이청용을 영입해 반전을 노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볼턴의 더기 프리드먼 감독은 "이청용이 나른 곳에서 활약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청용도 월드컵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다른 리그나 구단으로 이적해 뛰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청용을 붙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프리드먼 감독은 "이청용은 뛰어난 선수다. 그러나 다리 부상 이후 아직 정상 컨디션을 되찾지 못했다"며 "크리스마스쯤 최고의 컨디션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턴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1승6무5패로 21위를 기록 중이라 내년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계영 800m 역전승… 박태환 4관왕 박태환이 2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계영 800m 결승에서 1위로 골인한 후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 있다. 앞서 자유형 400m, 계영 400m,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박태환은 목표로 세웠던 5관왕 달성에 금메달 하나만을 남겨놨다. 24일 혼계영 400m에서 다섯 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유순호기자 사진/뉴시스

SK 은퇴 박경완 2군 감독 맡는다

SK 와이번스의 박경완(41)이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동시에 소속팀 2군 감독으로 파격 임명됐다.

22일 구단의 공식 발표 후 박경완은 "지금 현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했다.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지도자로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지도자로의 새 출발에 대해 그는 "23년간 쌓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수할 생각이다. 지도자 선배이자 존경하는 김원형 코치에게 한 번씩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경완은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해 현대 유니콘스와 SK를 거치며 23년간 프로 무대에서 활약했다. 빼어난 볼 배합과 수 읽기 능력을 지녔고, 투수 리드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왔다. 통산 204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9에 그쳤지만 역대 통산 홈런 5위로 314개를 지내며 타석에서도 한 방을 과시했다.

2001년에는 홈런 24개, 도루 21개로 포수 최초 20-20 클럽에도 가입했다. 1998·2000년(현대), 2007~2008·2010년(SK)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총 5개의 챔피언 반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김주성 역전슛' 동부, 삼성에 20점차 뒤집기

프로농구 원주 동부가 무려 20점 차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했다.

동부는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85-84로 이겼다.

2쿼터 한때 21-41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던 동부는 김주성, 허버트 힐, 이승준의 '트리플 타워'를 앞세워 경기 1초를 남기고 승부를 뒤집었다.

4승1패가 된 동부는 1위 울산 모비스(4승)를 0.5경기 차이로 추격했다. 반면 삼성은 최근 4연패 늪에 빠졌다.

프로농구 전적 22일	
원주 동부	서울 삼성
85	84

/이국현기자

SK건설

인천의 위대한 변화로

당신의 행복을 완성하겠습니다

집이 더 넓고 깨끗했으면, 자연이 더 가까이 있었으면, 밤길에도 안전했으면,
교육여건이 더 좋아졌으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당신의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천의 위대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 인천의 랜드마크!

인천 SK스카이 뷰

모델하우스 개관중

SK Sky VIEW

SCALE

COMMUNITY

+α SPACE